

안정적 목장경영, 여성낙농인의 손끝에서 시작!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기본과정) 개최결과

협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선사인 호텔(대전 동구 소재)에서 전국의 여성낙농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기본과정)을 호평 속에 마쳤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후계낙농인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일정 내내 자리를 함께한 여성분과위원회 이명규 위원장은 입교식에서 “목장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낙농인들이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렵게 찾아와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의 낙농특강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책, 전국단위 쿼터제 등 낙농선진국 사례에서 배워야

이번 교육일정은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의 낙농특강으로 시작됐다. 「국제화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이뤄진 특강에서 조석진 소장은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미국, EU 및 일본에서 자국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우유소비 확대책, 전국단위 쿼터제, 유대체계 등 우리나라 낙농산업에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목장환경 개선 등 낙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후계낙농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목장회계의 개념과 중요성만 알아도 경쟁력 향상에 도움

이어서 애그리텍 이엔씨 나현채 대표로부터 회계의 개념부터 경영분석, 장부기록법까지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목장경영 강의가 진행됐다. 조별과제로써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목장의 연간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그 간 등한시했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조별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교육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는데, 쉬는 시간에도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추가로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여성낙농인들에게서 미래 전문경영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축사 환경관리교육, 방역교육, 시판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다룬 리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을 통해 연간 자금의 흐름을 파악, 진단해볼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조별과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재차 점검하는 교육생들

더십 교육,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예절교육이 진행됐고,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교육이 모두 끝났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학습태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생 일부를 선발하여, 협회장 표창장 수여 및 해외 낙농선진지 연수교육의 자격을 부여했다.

전문지식의 현장적용과 정보공유 통해 목장경영 안정 도모하겠다!

교육에 참여한 한 후계낙농인은 “낙농을 시작하는 세대기로서 현장지식이 부족한데, 낙농업



예절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태도를 배우고, 바른 품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배를 만나 고충을 토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척 기쁘다”면서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생산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장에 돌아가면 교육받은 내용을 바로 접목시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심화과정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여성낙농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찬 교육현장이 기대된다. ☺

